월간 전기계비
???? (02)2168-1300(代)

## 성윤모 장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배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한·브루나이 투자협력 MOU에 서명했다.

## 홍의락 의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은 지난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종호 전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에 선임

김종호 前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이 지난달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김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인터뷰

정동수
한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정부는 공공의 적이 됐다. 그러나 정부도 마냥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갖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정책이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본지는 정동수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66)를 만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 "미세먼지 해결,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 질 좋은 타이어 개발, 인공강우 등 통해 근본 대책 필요

"대한민국 하늘을 흐리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7할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3할의 원인 해결에 집중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클린디젤 폐기 정책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시간 낭비입니다."

정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진단이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차량 연료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극히 미미한 영향만 끼친다는 지적이다. 그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타이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연료 연소 과정보다 타이어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20배가 많다는 환경부 조사가 있습니다. 전기차든 수소차든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그 어떤 차량도 타이어가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는 셈입니다. 타이어의 내마모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정 교수는 노후 시설·차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후 경유 차량의 경우 인적이 오가는 도로에서 직접 매연을 내뿜기 때문에 폐차에 들이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인터뷰 내내 강조하던 키워드는 '기술력'이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는 인공 강우가 주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 강우 기술 협력에 이미 합의했고, 인공 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의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넘어간다고 중국이 주장하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금 당장 하늘을 덮고 있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까요? 중국에 가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변에 빽빽이 나무를 심으라고 할까요? 중국은 지금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폭죽을 터뜨리듯 물을 흩뿌리는 인공강우 기술은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주요 기술력이 단기간에 급상승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인공 강우 기술이 보편화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호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박정배 기자 pjb@

## IAEA 기술협력자문위 자문위원에 김미숙 원자력의학원장 위촉

김미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이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9년부터 3년이다.

기술협력자문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5년 출범해 개도국 대상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이전, 회원국 간 교류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미숙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시작한 이후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방사선의학정책개발센터장, 방사선치료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또한 국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선 기술 분야 협력사업인 아태지역 체부 정위적 방사선치료(SBRT) 기술 보급사업 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김미숙 원장은 "의학원이 2001년 IAEA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개도국 의료진의 교육훈련·자문 등 다양한 기술협력 기여활동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방사선의학 분야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

## 전기차산업협회 출범…박규호 초대 협회장 취임

#### 충전기, 충전서비스, 전기차·부품 등 3개 분과위원회 구성…19개사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를 감독기관으로 둔 사단법인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정식 출범했다.

한국전기차산업협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 15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초대 협회장은 박규호 한국전력공사 전 부사장이, 부회장은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박 협회장은 "미세먼저 공습으로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아니라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나쁜 날이 이어진다는 신조어)', '삼한십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있다"며 "환경문제 해결책으로 전기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전기차 보급이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올해 10만대, 내년에는 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전기차를 비롯한 충전 사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 기업 협업의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업의 상시채널 구축 ▲우수 중소기업 발굴 육성, 민간 주도의 자생적 시장 생태계 구축 ▲전통적 자동차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신성장 사업 기회 모색·제공 ▲글로벌 교류를 통한 국제 협업 기반 마련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우수 인재 양성,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 저변 확대라는 목적을 뒀다.

협회는 '충전기', '충전 서비스', '전기차 및 관련 부품'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각 신상희 중앙제어 대표, 김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 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회원사로는 시그넷이브이, 피엔이시스템즈, 씨어스, 클린일렉스, 피에스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대영채비, 에버온, 에스트레픽, 파워큐브, 파워프라자, 에디슨모터스, 피엠그로우, 진우에스엠씨, 이티에스 등 19개 업체가 참여했다.

박 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이소성대(以小成大)라는 말처럼 지금은 작게 출발하지만 앞으로 크게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lgw909@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지난 11일 중소기업유통센터 15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태양광산업協, 정총…"올해 남북 경협·신흥시장 개척 나설 것"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남북 경협과 신흥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태양광 민간 자격증, 태양광 홍보 강화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사진)는 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2019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보고와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 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과 정부 정책 제언, 업계수렴활동, 재생에너지 대국민 인식제고 홍보활동 등을 수행했다"며 "특히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EPR)과 같은 정책과 산업 정책에 대응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대내외적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협회 신임이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사에는 박영문 탑선 이사, 김종천 한솔테크닉스 부사장,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처장, 박배륜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김용식 BJ파워 대표가 추가로 선임됐다. 그간 협회 감사를 맡아온 백성선 웅진에너지 전무의 후임은 백인기 웅진에너지 상무가 맡는다. 협회는 앞으로도 임원진의 보강을 통해 협회의 업무역량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근 협회 회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2019년은 태양광 산업에 있어 중요한 해"라면서 "다결정 모듈에서 단결정 모듈로, 대형 태양광 발전소 중심에서 미니그리드·스마트 그리드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발맞춰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